



유동철 리노 신부 | 해외선교봉사국 차장



젊은이 선교 체험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한 9박 10일

해외선교봉사국은 지난 6월 30일(화)부터 7월 9일(목)까지 9박 10일의 일정으로, 몽골 울란바타르 외곽에 위치한 노밍요스 학교(살레시오 수녀회 운영)로 젊은이 선교 체험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봄 서울주보 지면을 통해 만나게 된 12명의 젊은이와 벽화 담당 스태프 한 명, 저희 부서 직원 두 명, 그리고 저까지 총 16명이 몽골 청소년들과 어우러져 대자연을 느끼며 아주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4월 25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총 다섯 차례의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몽골, 평신도 선교, 그리고 관계와 공동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청해 들었습니다. 또한 팀을 이루어 몽골 학생들과 함께 나눌 프로그램을 직접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두 달여 동안 준비해온 비즈 팔찌 만들기, K-POP 릴스 찍기, 연극, 영어 노래 배우기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오전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몽골 학생들과 함께했습니다. 오후에는 학교를 둘러싼 담벼락 중 약 30미터 구간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처음 해보는 벽화 작업, 처음 잡아보는 페인트 붓이었지만, 피약별 아래에서 때로는 몽골 학생들과, 때로는 우리끼리 최선을 다해 한 칸 한 칸의 벽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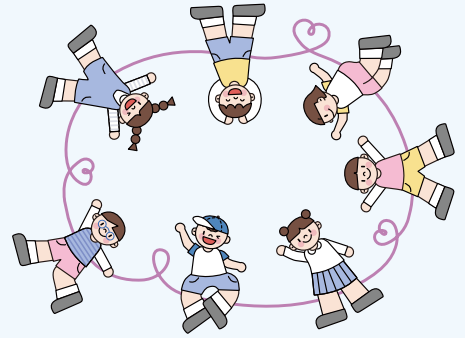
이번 몽골 선교 체험은 단순한 봉사 활동을 넘어, 우리 젊은이들에게 신앙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미사와 '성령 안에서의 대화'를 통해 하루를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며, 내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몽골 학생들과의 만남이었지만, 그 안에서 서로 안에 계신 하느님, 곧 사랑으로 활동하시고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낯선 땅, 낯선 얼굴들 앞에서 처음에는 서툴렀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다가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선교였음을 깨달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말이 아닌 마음으로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몽골 학생들의 해맑은 웃음 속에서, 함께 그려낸 벽화의 색채 속에서, 그리고 매일 밤 나눈 대화 속에서 하느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현존을 마음 깊이 느낀 9박 10일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세상 속에서 겪던 저마다의 시련과 아픔을 잠시 내려둔 채, 하느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 체험을 통해 얻은 은총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합니다. 이 소중한 만남과 나눔이 몽골 청소년들에게도, 그리고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선교 체험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과 이 여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명요스로부터 온 시간 : Youth on Mission

박상연 마르티노

신정3동 성당



“드디어 내일이 첫 모임입니다! 모두 필참인 거 아시죠?”

서울주보에서 우연히 2026년 젊은이 해외선교 체험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지만, 막상 문자를 받으니 문득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괜히 가겠다고 한 것은 아닐까?’ 하는 물음이 연신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여러 차례의 준비 모임을 거쳐 마침내 지난 6월 30일, 저희의 선교지인 몽골 노명요스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과의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그 낯센도 잠시뿐 어느새 학교 교실마다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다양한 게임과 댄스, 만들기 체험 등 여러 활동을 함께하며 아이들과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비록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몸짓만으로도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체육관에서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하고, 학교 담장에 알록달록 예쁜 벽화를 그리며 우리는 어느덧 하나가 되어 갔습니다.

선교 일정을 마무리할 무렵에는 몽골 학생들의 집에 초대받는 특별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정성스레 준비해 주신

전통 음식을 나누고, 집을 나설 때는 다 함께 생활성가 ‘야콥의 축복’을 불러주었습니다. 음식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저희의 찬양을 흐뭇한 미소로 들어주시던 가족들의 모습에서 선교가 주는 참된 기쁨을 깊이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몽골에서의 여정은 저 자신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매일 봉헌했던 미사, 성경 말씀을 읽고 성령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눈 시간을 통해 선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제 삶과 신앙을 겸손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체험을 통해 저는 선교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와 삶의 행동으로 신앙을 전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시듯,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곁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몽골에서 배운 이 소중한 가르침은 지금도 제 일상과 신앙생활 속에서 밝은 빛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선교,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 1,8)



다름, 그리고 섭리



이현규 대건 안드레아 신부

과테말라 산티아고대교구

선교사가 되겠다고 한국을 떠난 지 어언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볼리비아에서 칠레, 그리고 지금 있는 과테말라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 보면, 결국 그 모든 시간이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와 보호 아래 있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특별히 본당 사제로서 신자들과 어울리다 보면 단순한 여행으로는 볼 수 없는 모습을 많이 보곤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서 모두 먼 나라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칠레나 볼리비아나 과테말라를 뚝뚝 그려 '중남미'라는 카테고리 안에 적당히 넣어두고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 안에서 살다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만 분류해서는 안 될 정도로 큰 차이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칠레의 교회는 많이 열려 있는 교회였습니다. 현재의 문제들에 깨어 있고, 변화와 새로운 시도에 긍정적인 교회였습니다. 반면 과테말라의 교회는 전통을 사랑하고 지켜나가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전통을 고수하며, 그 아름다움을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가 이들의 중간 지점쯤에 있다고 보일 정도로 두 교회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외부인으로서, 그리고 서로 다른 교회의 모습을 경험하면서 내린 결론은 두 가지 모두 각자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완벽하게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왔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어느 하나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다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장점이 더 뚜렷하고, 그에 따라 감내해야만 하는 약점도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두 교회 신자들은 모두 지금 자신들의 교회 모습과 방향성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위에서 누군가가 시켜서 그렇게 흘러갔던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진심에서 탄생한, 그들의 마음과 염원이 만들어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매우 달랐지만, 그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고 하느님과 이웃을 더욱 잘 사랑하려는 의지는 같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교회는 그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안에서 지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개인적 체험이 현재 극단의 시대를 사는 한국의 신자분들께 하나의 묵상 포인트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외국인으로 살아보면서 깨달은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가까이서 보면 절체절명의 문제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사안들도 한 걸음 물러나 보면 사실 그렇게 중대한 일이 아닌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 우리가 모두 완덕에 도달하여 하느님처럼 생각하고 하느님처럼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갈등과 분열, 서로에 대한 미움과 몰이해가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우리가 추구해야 했던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다른 것이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다양성 안에서 하느님의 길을 찾기를 기도하며, 멀리서나마 작은 묵상 글을 보내드립니다.

해외 선교사 인재 은행



선교사 인재 بانک

7월 말 기준 60명의 소중한 인재가 등록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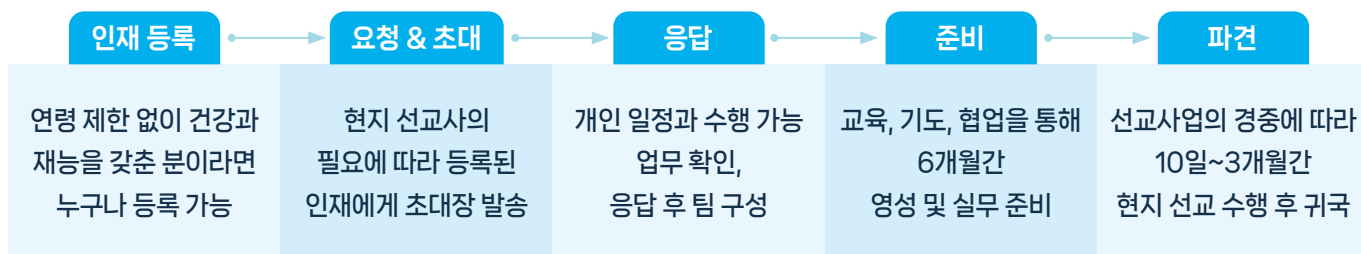
이제 전 세계 선교사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합니다.

선교의 기쁨을 함께 나눌 더 많은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평신도 선교사 프로그램은 '인재 은행'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던 나의 소중한 노하우가, 이제는 하느님의 손길이 되어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쓰일 소중한 기회입니다.

해외선교사 인재 은행에 용기 내어 등록해 주세요. 여러분이 가진 어떠한 재능도 모두 하느님께서 주신 귀한 талант입니다.



매월 첫 목요일 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2026년 9월 3일(목) 오후 2시	일시	2026년 10월 1일(목) 오후 2시
장소	명동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교스트홀)	장소	명동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교스트홀)
집전	김재원 베드로 샤벨 신부 (대만 선교)	집전	김동원 베드로 국장신부, 유동철 리노 차장신부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후원해 주세요!

후원계좌 우리 454-035571-13-101 | 국민 375-01-0091-080 | 신한 140-009-624437 | 농협 386-17-002881
예금주 _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후원 방법 (1, 2 중 택일)
1. QR 코드 접속 또는 ARS 1877-1336
- CMS(자동이체),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한 정기·일시 후원이 가능합니다.
2. 직접 후원계좌로 송금 또는 자동이체 신청 후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위의 4개 은행 중 택일)

후원 문의 02) 727-2407, 2409 | <http://mission.catholic.or.kr>



후원 신청 QR